

KCMI

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 : 보험업

홍 원 구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험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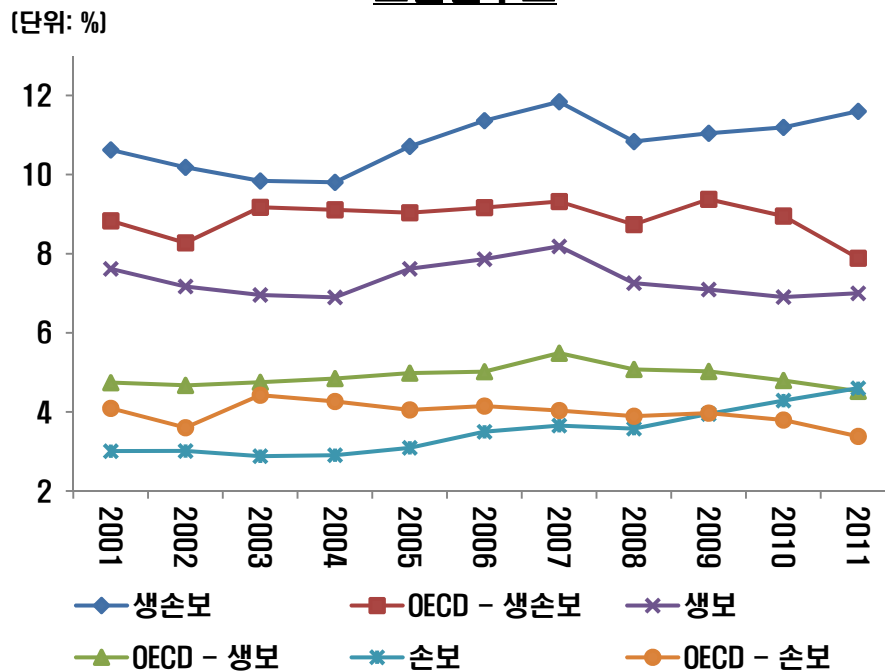
❖ 보험침투도(=보험료/GDP)

➤ 2011년 11.6%로 OECD 평균 7.9%보다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손보 산업이 생보 산업보다 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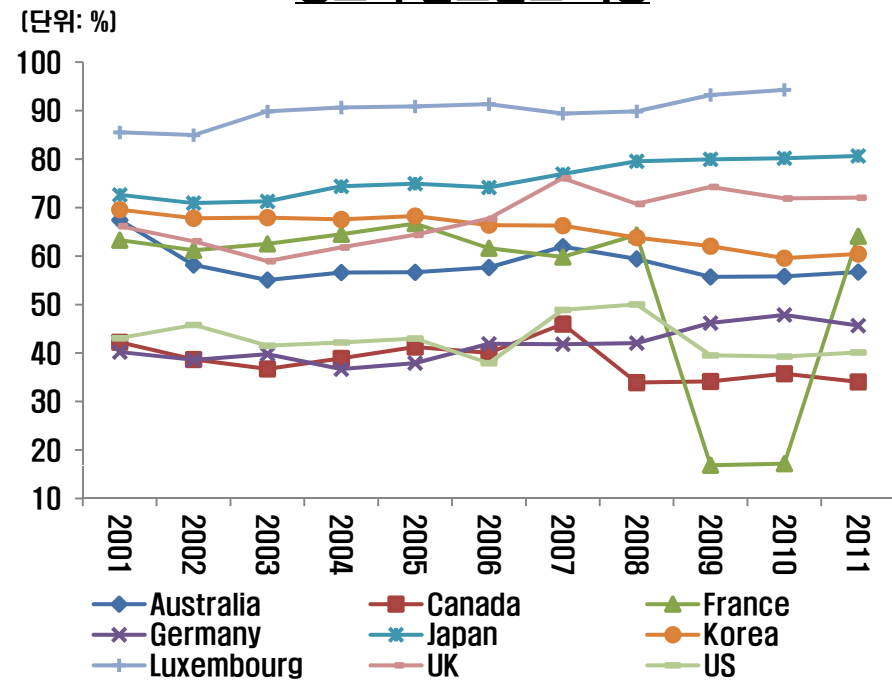
➤ 생보 수입보험료의 비중이 다소 줄고 있음

보험침투도



자료: OECD 보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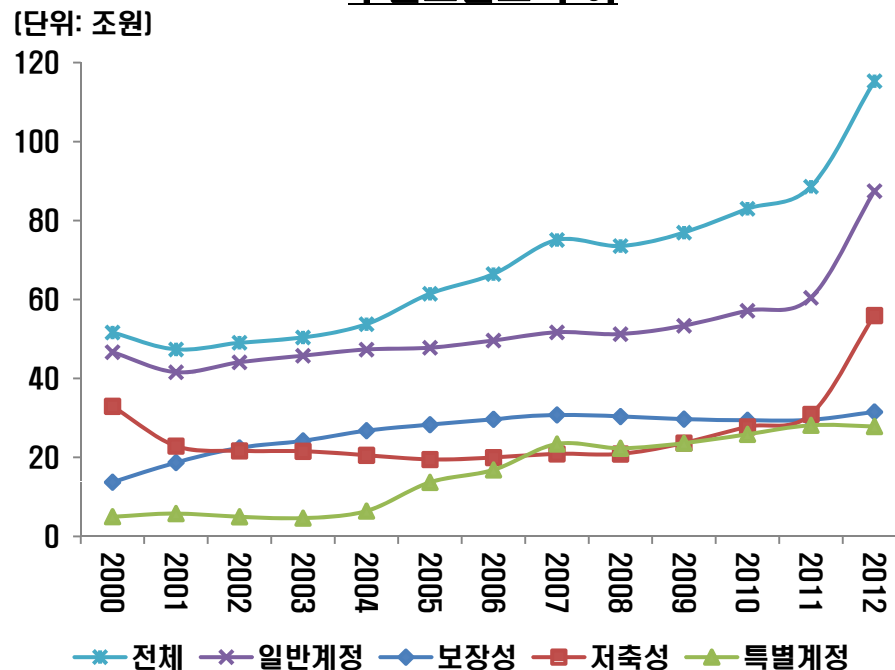
생보 수입보험료 비중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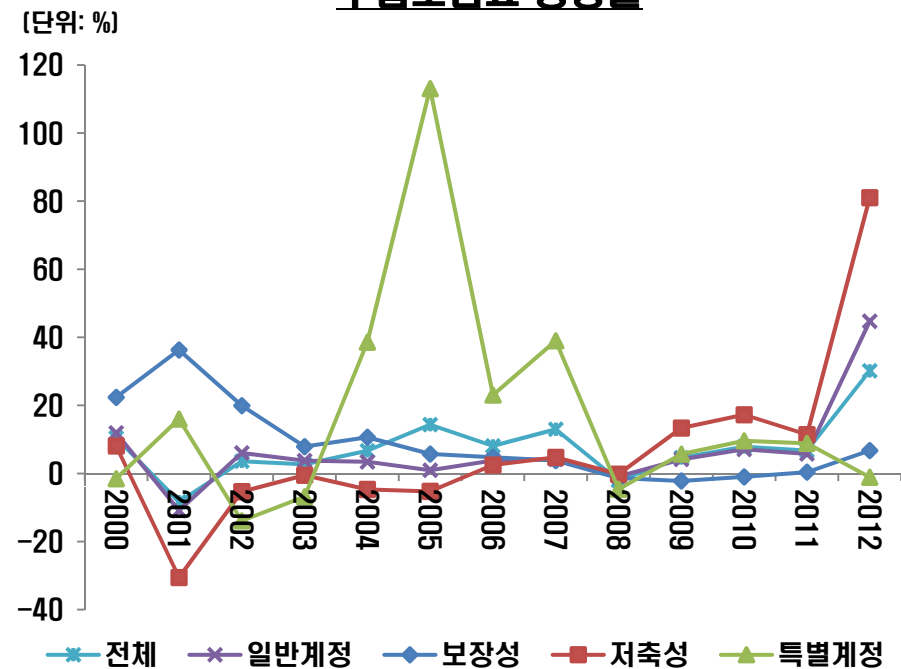
- ❖ 2012년(FY) 30%가 넘는 고성장
 - 저축성 보험이 보장성 보험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
- ❖ 2013년(FY) 저축성 보험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수입보험료 전년 대비 감소 예상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경영통계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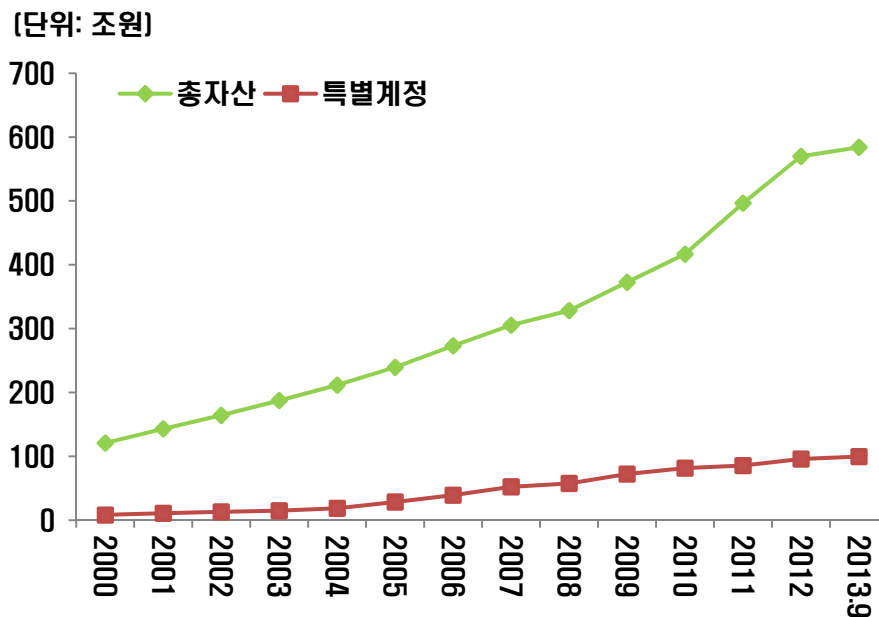
수입보험료 성장율



생보사 자산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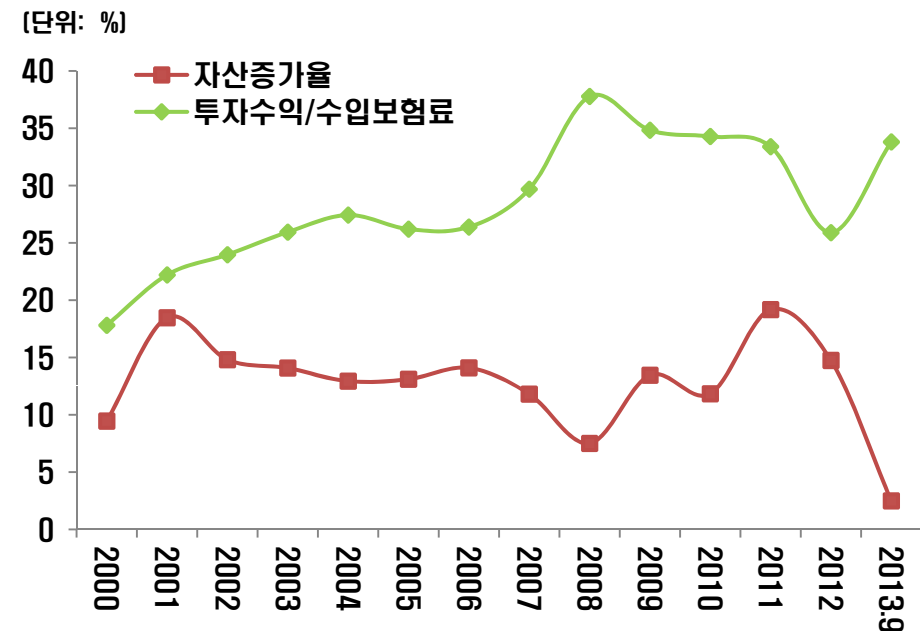
- ❖ 생보사의 자산은 2013년 9월말 현재 584.1조원(특별계정 99.5조원 포함)이며, 이 중 457.1조원이 운용되고 있음
 - 특별계정의 비중은 2013년 9월말 현재 17.0%를 차지
 - 전체 금융권 자산의 3,475조원의 16.8%에 해당
- ❖ 2013년 9월말 생보사의 투자수익 비중이 수입보험료의 33.8%에 달함

자산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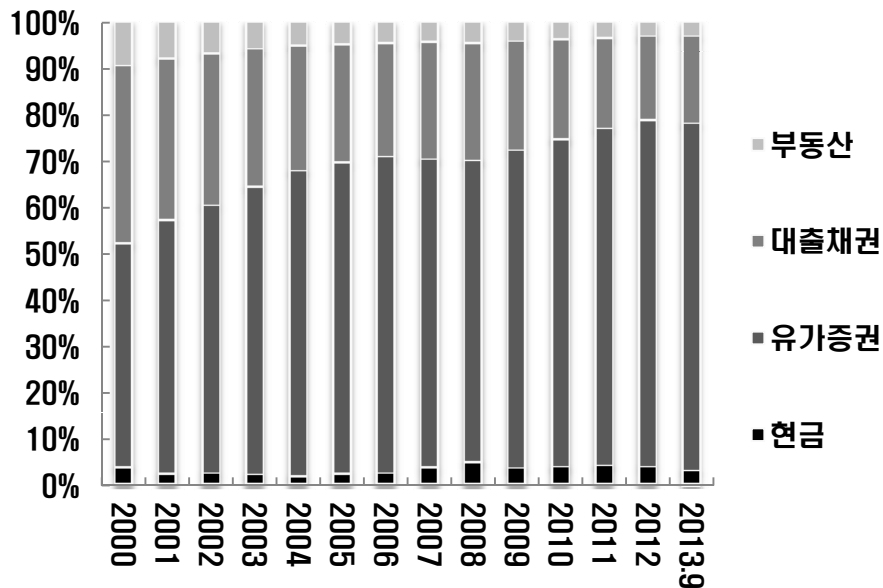
자산증가율/투자수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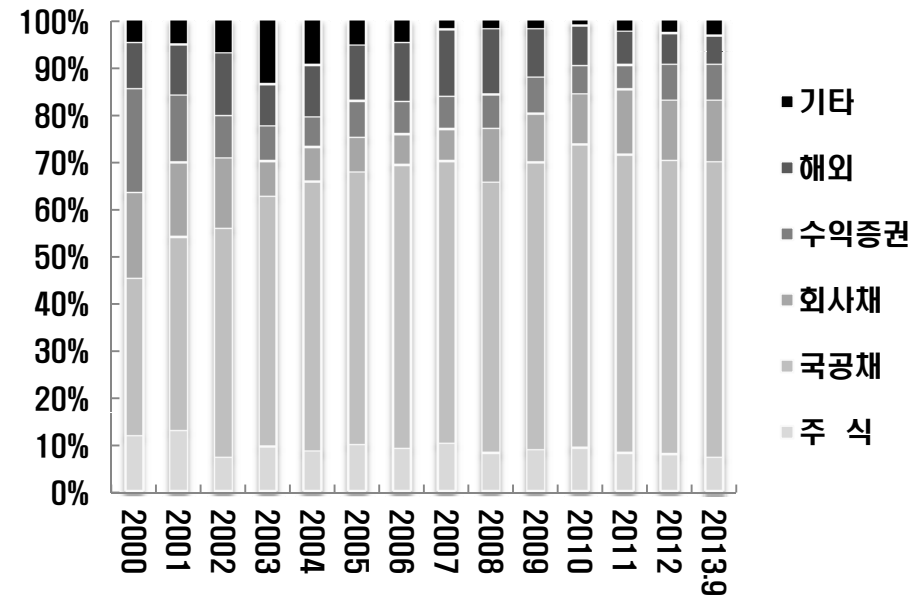
자산 운용(생보 일반계정)

- ❖ 생보사의 일반 계정 운용자산은 2013년 9월말 현재 457.1조원
- ❖ 대출채권의 비중이 줄고, 유가증권의 비중이 증가
 - 유가증권 중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많음(62.9%)

운용자산의 구성



유가증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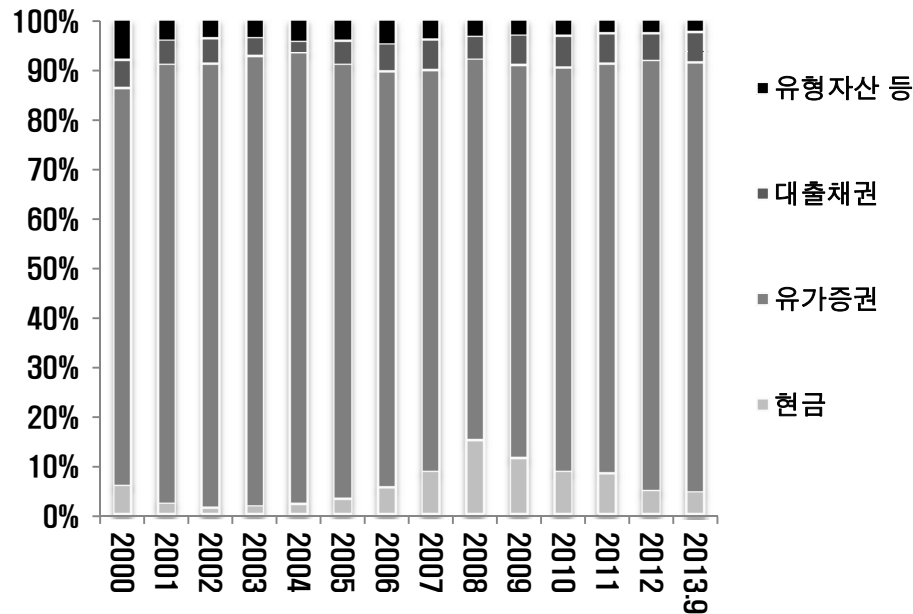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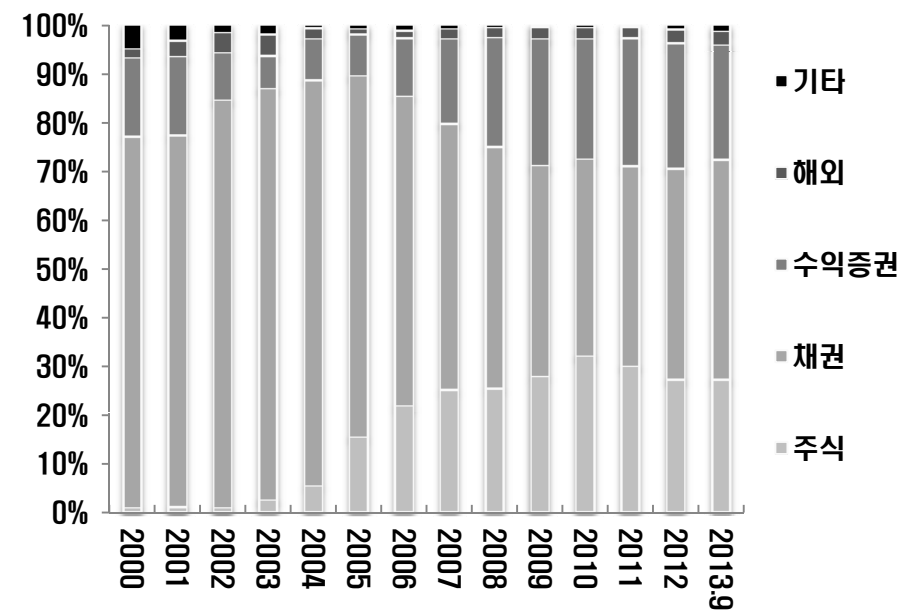
자산 운용(생보 특별계정)

- ❖ 생보사의 특별계정 자산은 2013년 9월말 현재 100.8조원
- ❖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음(86.8%)
 - 변액연금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었음

운용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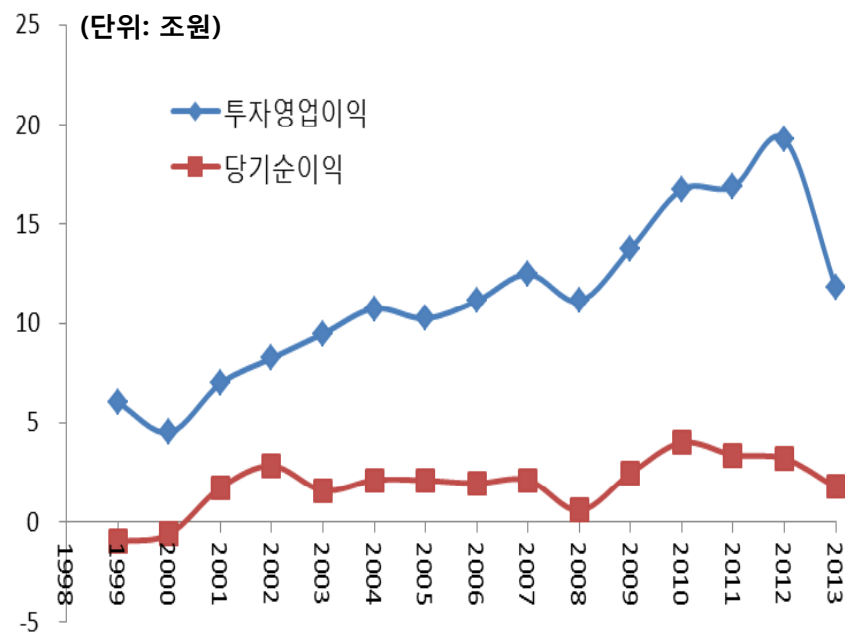
유가증권의 구성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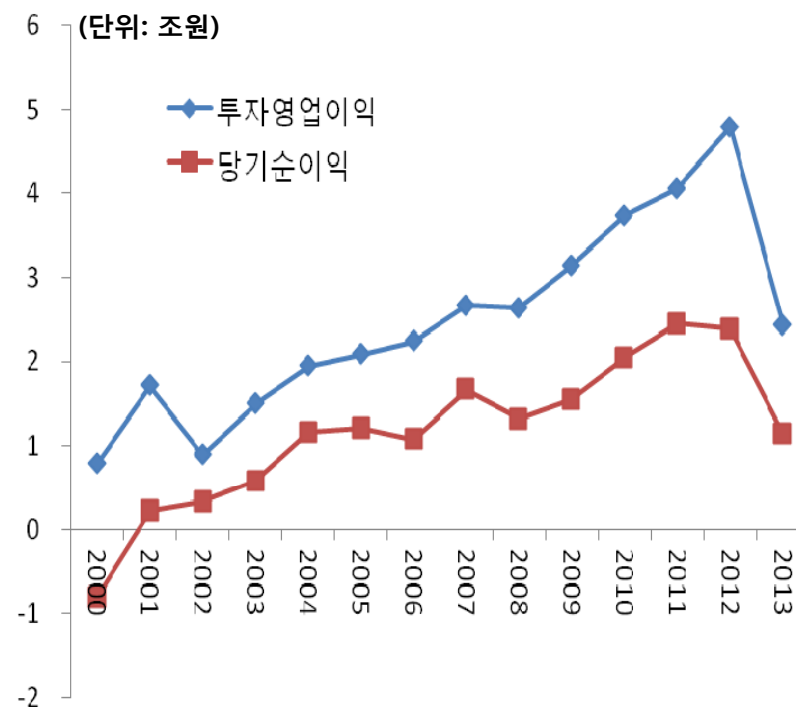
보험사의 투자이익과 당기순이익

생보사의 투자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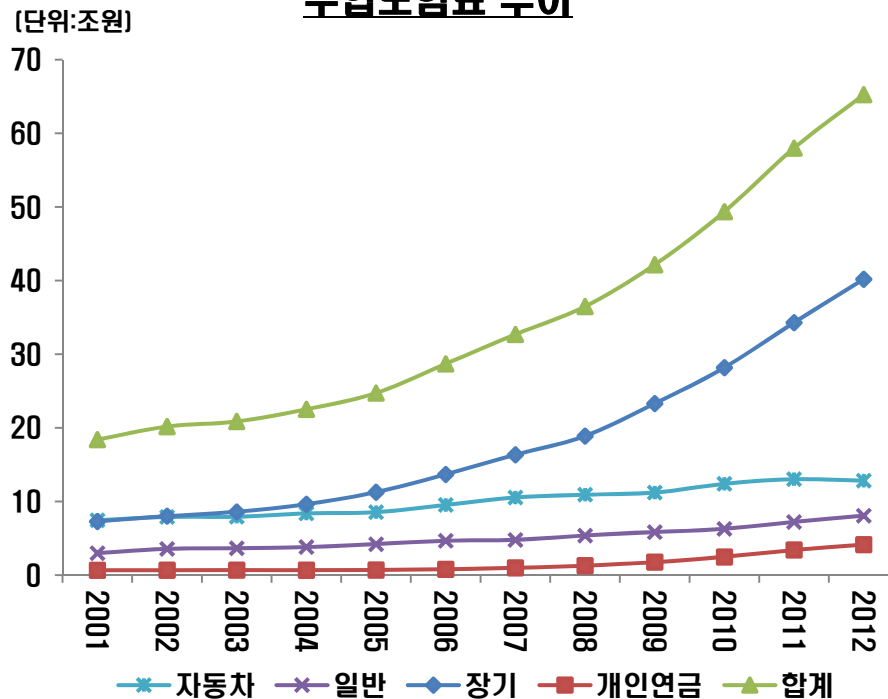
손보사의 투자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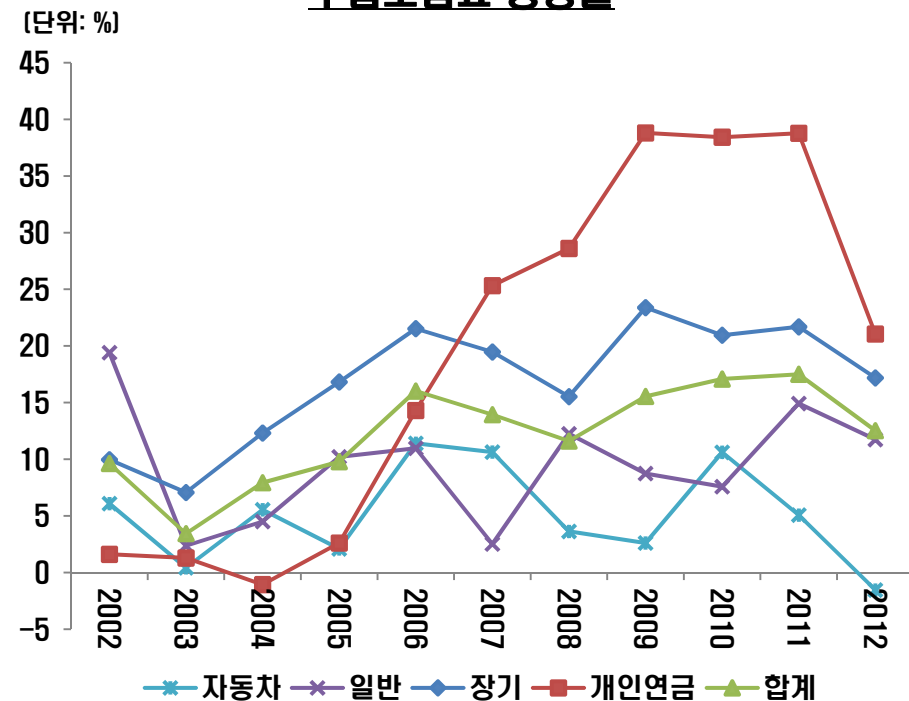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 개인연금, 장기보험의 성장으로 2006년 이후 10% 이상 지속 성장
 - 개인연금(20~40%)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2012년부터 성장률 급속 하락
- ❖ 2013년 성장률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며, 2014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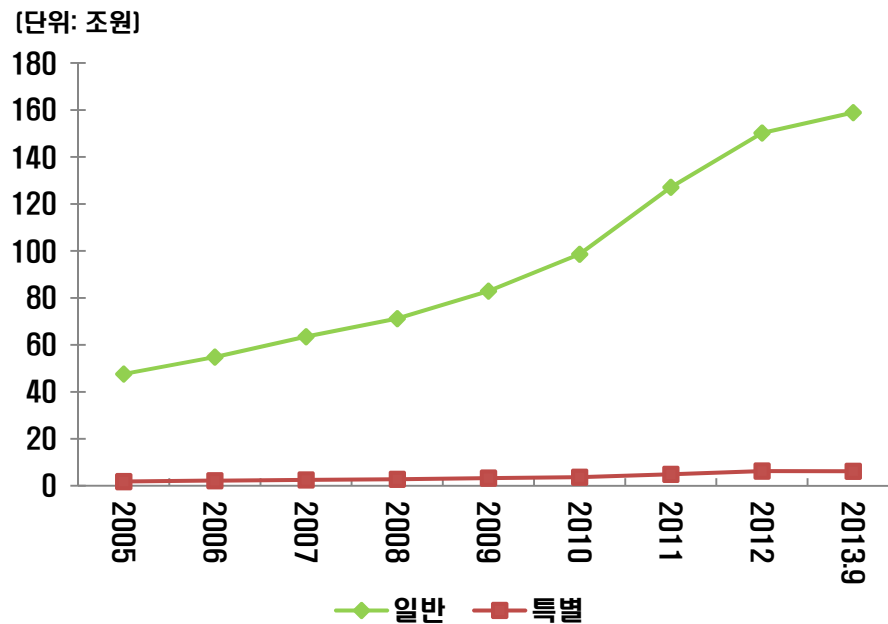
수입보험료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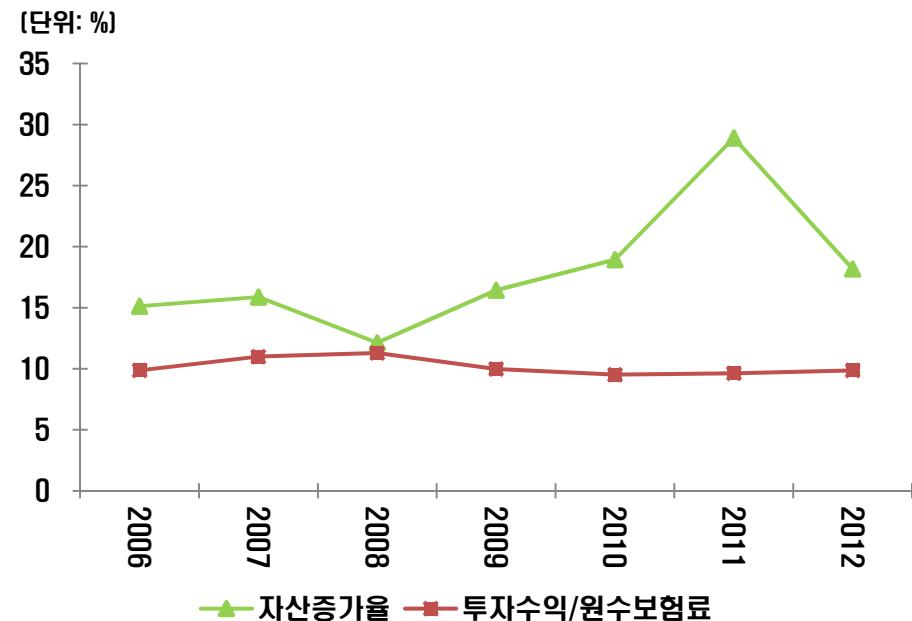
손보사 자산의 성장

- ❖ 손보사의 자산은 2013년 9월말 현재 165.1조원에 이르며, 일반계정에서 158.9조원, 특별계정에서 6.2조원이 운용되고 있음
 - 전체 금융권 자산의 3,475조원의 4.8%에 해당
- ❖ 2013년 3월말 현재 투자수익이 수입보험료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음

자산 추이



자산증가율/투자수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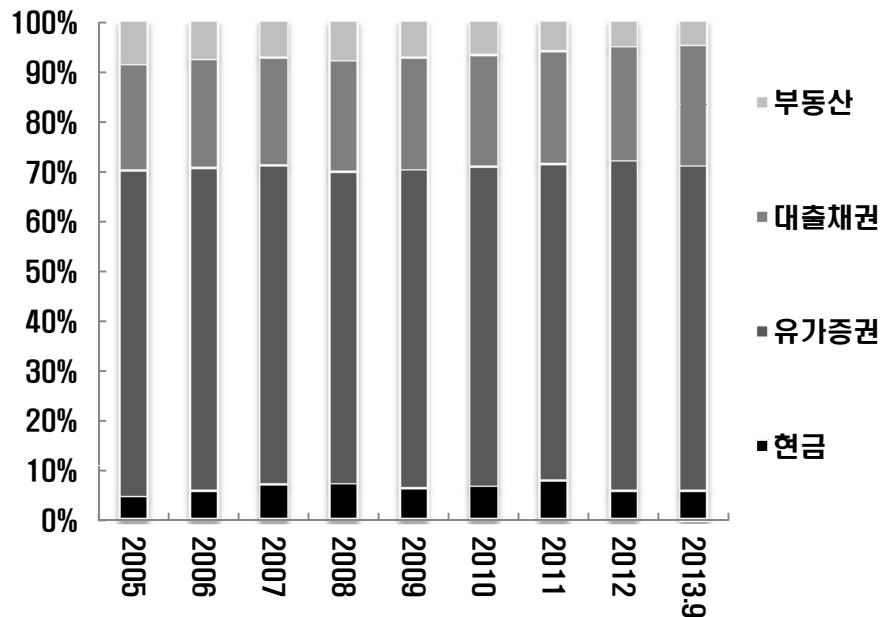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서비스,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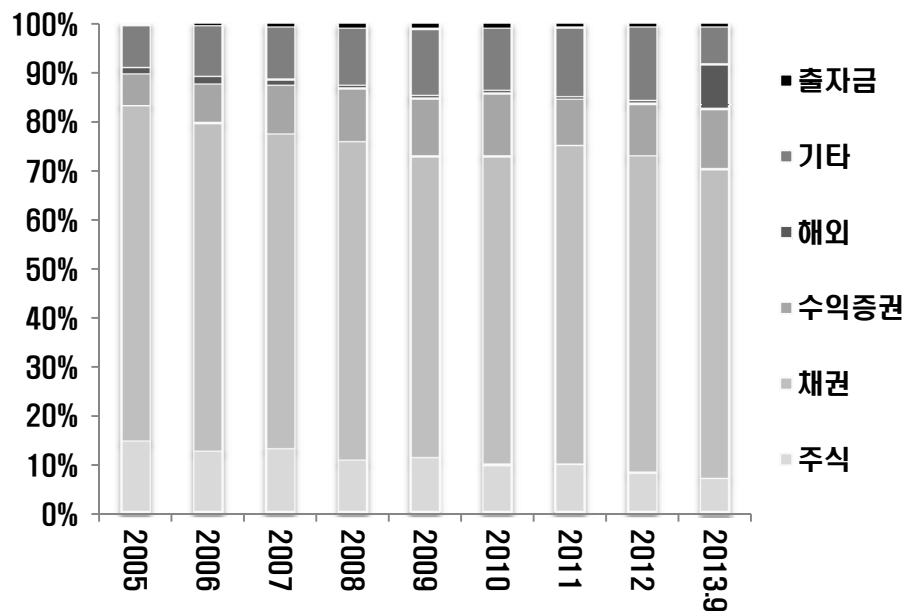
자산 운용(손보 일반계정)

- ❖ 손보사의 일반 계정 운용자산은 2013년 9월말 현재 131.0조원
 - 생보사에 비해 현금 자산의 보유 비율이 높음

운용자산의 구성



유가증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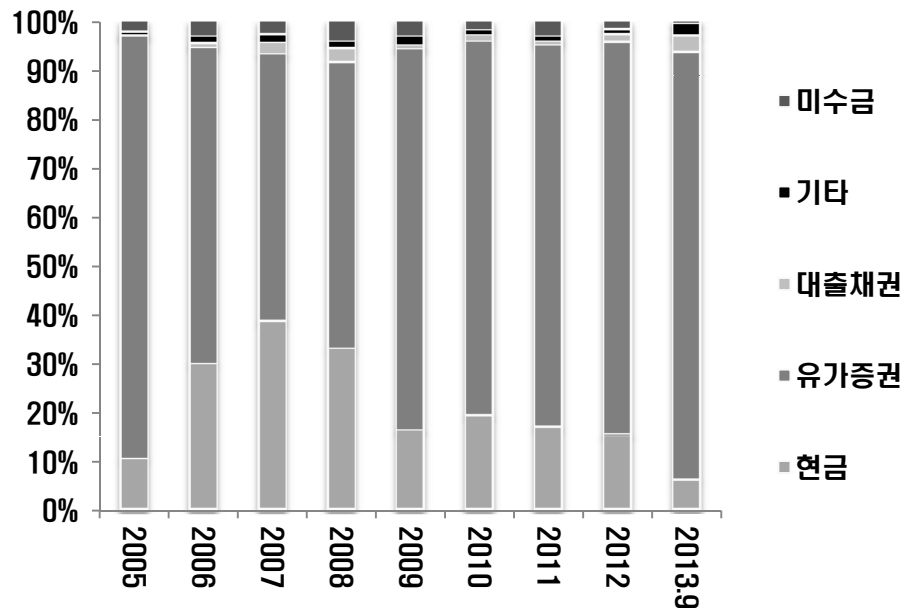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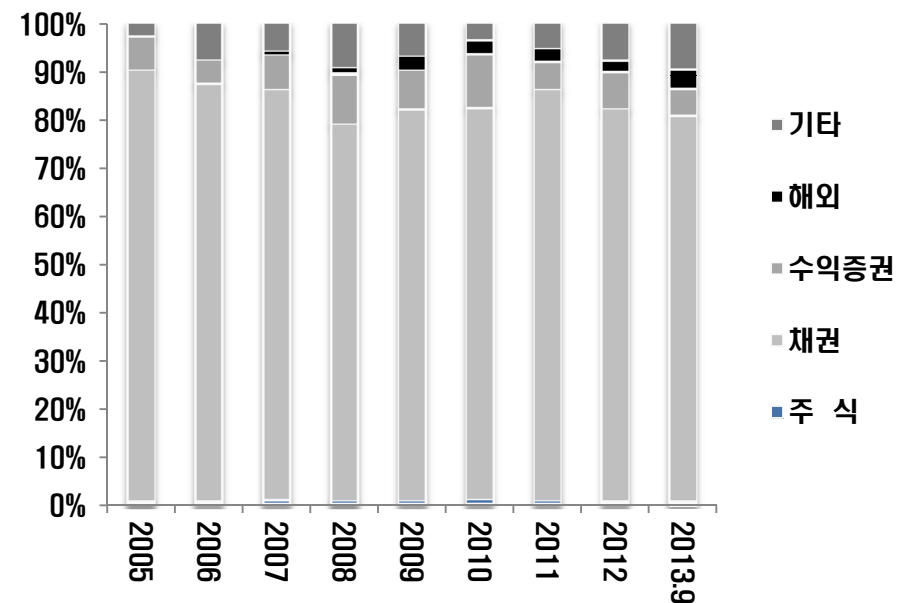
자산 운용(손보 특별계정)

- ❖ 손보사의 특별계정 자산은 2013년 9월말 6.2조원
 - ▶ 생보사에 비해 특별계정의 비중이 낮음
 - ▶ 대부분은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생보사에 비해 현금 자산 비중이 높음

운용자산의 구성



유가증권의 구성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서비스

고령화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 ❖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후-건강관련 상품 수요 증대
 - 일시 납연금,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 ❖ 상품 구성 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필요
 - 장수위험
 - 종신휘 개인연금은 생보사만의 강점이며 동시에 위험 요인
 - 과거에 판매된 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명을 전제로 설계됨
 - 1~3회 생명표(88.10~2002.11, 기대수명 75~80세) 적용 비율이 24.5%
 - 2012년 7월 이후 7회 경험생명표 사용(기대수명 94.7세)
 - 2007~2012년 종신휘 선택비중(가입 시: 89.2%, 수급 시: 54.7%)(한국은행, 2013)
 - 저축성 보험 비중이 늘어나 경기변동 위험 확대
 - 특히 변액연금 등의 확대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 증대
 - 저축성 상품은 다른 금융 기관과 경쟁 증대
 - 생손보간의 경쟁 격화
- ❖ 공사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여러 기둥 연금 체계 (multi-pillar pension systems)
 - 건강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저금리 추세 지속

❖ 저금리 추세의 지속 가능성

- ▶ 투자 수익 감소, 생보사의 자산 -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

❖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의 판매 증가로 생보사의 금리 리스크 증대

- ▶ 2012년 4월~12월간, 생보 운용자산 이익률은 생보 4.8%, 적립금 평균이자율 5.6%
- ▶ 생명보험사는 보험가격 자유화 이전인 2000년 3월 이전에 판매한 6.5% 이상 확정이율 계약이 전체 적립금의 30%인 109조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부채의 부담 이율

(단위: %)

	2012.06	2012.09	2012.12	2013.03	2013.06
운용자산 이익률	5.03	5.06	4.91	4.75	4.79
적립금 부담이율	5.69	5.59	5.44	5.36	5.22

자료: 예금보험공사(2013)

생명보험사 부채의 부담 이율(2012년 12월말)

(단위: 조원)

	~ 4%	4%~	5%~	6%~	7%~	8%~	9%~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7.9	34.9	26.1	19.4	77.4	13.7	0.9	180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6.3	170.0	6.7	1.2				184

자료: 금융감독원(2013)

연금시장의 성장 지체

❖ 퇴직연금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 중소기업 시장이 중요해짐
- DC형 퇴직연금 시장 확대 예상
 - 중소기업, 이직자의 IRP 마케팅 강화
- 자산 인출 시장의 선점
 - (즉시)연금 등

❖ 개인연금 관련 제도의 변화

- 일시납 연금의 비과세 혜택 축소
 -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과세(2012.8.8)
- 개인연금 세제 혜택 축소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

민영건강보험 역할

❖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

- 정액형 건강보험
-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기준 생보사 10.1조원(8.8%), 손보사 6.9조원(10.1%)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실손형 의료보험의 영역 재조정

❖ 2011년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은 55.3%, 민간재원은 44.7%이며, 민간재원 중 가계부담 35.2%, 민영보험보험재원은 5.5%임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적용 확대

(단위: %)

	정부	사회보장기금	민영보험	가계 부담	기타	의료비(조원)
1980	9.9	12.3	0.4	73.4	4.1	1.4
1990	8.6	30.9	1.2	55.7	3.6	7.4
2000	11.5	38.9	5.0	39.4	5.2	26.1
2010	12.7	43.7	5.4	34.2	4.0	85.2
2011	11.7	43.6	5.5	35.2	3.9	91.2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1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비전속 판매채널의 확대

- ❖ 전속채널의 비중 감소로 보험사의 시장통제력 약화
 - 전속 조직의 초회 보험료 비중이 20.3%(2013년 4월~10월)로 낮아짐
 - 불완전 판매 비율이 낮은 설계사 채널 비중이 낮아져 민원 발생 가능성 높아짐
- ❖ 방카슈랑스 확대
 - 중소형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전략적 선택
 - 2013년 4월~10월 생보 초회 보험료의 7.3%
(2009년 59.0%, 2010년 67.5%, 2011년 71.1%, 2012년 74.1%)
- ❖ 설계사 조직의 변화
 - 보험모집인의 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 설계사 세금 부담, 보험사 비용 부담
 - 수수료 체계 변화